

與, 잇단 투기 의혹에 위기감 고조... 지지층 결집 총력전

현역 의원 투기 의혹 7명으로 늘어... 선거전 내내 'LH 사태' 여파 우려 '지인찾기' 각 지역 찾아 투표 독려 ... 당 대표 공백에 '대응력' 지적도

'미리보는 대선'으로 평가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탓에 고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의혹 등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의 총력전을 주문했고, 서울에 연고나 지인이 있는 각 지역의 지지층을 찾아 우회적으로 서울시장 투표를 독려하는 '지인찾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

다. 특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울 호남 인맥 찾기' 작업이 활발하고, 의원의 인력을 박영선 후보 캠프로 파견하는 등 재보궐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정가에 따르면 특검 도입을 통한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국면 전환을 노렸지만, 당내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거듭 제기되는 탓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지난 8일부터 소

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여부 등을 신고받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날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역 의원만 김경만·김주영·서영석·양이원영·양향자·윤재갑·임종성 의원 등 7명으로 불어났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역 보좌관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전날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 아내가 경기도 용인시의 임야를 '지분 조개개'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선출직 전수조사·국정조사 등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여야 협의회 협력을 예고하고 있어, 재보궐선거전 내내 'LH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것이냐는 우려가 감돈다.

당장 선제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등 난관 돌파의 전면에 나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조조해하는 기류가 일부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당 대표가 없는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인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에 민주당과 박 후보가 각각 사과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도 9시간이 넘게 걸린 것을

포함해 분 단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선거 정국에서 기민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누구든 (의혹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부동산 투기 적폐를 완전히 끊겠다는 생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한 것"이라며 "선거 시기에는 어차피 (이슈가) 집중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다른 관계자는 "잇단 투기 의혹은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면서 "투표율이 45%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지지층의 투표 여부가 관건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하는지 여부가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리 - 경제부총리 마스크 대화 정세균(오른쪽)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불발

재협상 20분만에 결렬... 투표용지 인쇄 전 29일까지 추가 협상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여론조사 실시 시한을 넘겼다.

양당의 실무협상 책임자인 정양석·이태규 사무총장은 18일 기자들에게 "두 후보가 어제오늘 여론 조사를 하고 내일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후보등록이 마감되는 19일 오후 6시까지 단일후보를 내리면 늦어도 이날 오전에는 2개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2천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시작해야 했는데, 그 시한을 넘긴 것이다.

결렬 원인은 여론조사 문구와 방식이다. 안 후보는 무선전화만으로도 두 업체가 각각 '경쟁력 및 적합도', '적합도 및 경쟁력'을 조사해 합산하자고 제안했다.

오 후보는 유·무선 방식으로 한 업체는 경쟁력만, 다른 업체는 적합도만 조사해서 합산하자고 역제안했지만, 안 후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 직후 보도자료에서 "최근 발표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11건 중 8건이 유선전화로 15~20%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유선전화 조사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버렸다. 결국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안 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셈이다.

결렬 직후 안 후보는 "대의를 위해 (오 후보 제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 후보가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자"고 화답해 양측은 오후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20분만에 돌아섰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오는 19일 각각 기호 2번과 4번으로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하는 오는 29일까지 단일화를 위한 추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4·7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 1호 등록

서울·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총 21명의 공직자를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후보 등록이 18일 시작된다.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출마자는 25세 이상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선거일 기준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하면 어찌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했다. 허 대표는 SNS에서 "후보를 1등으로 등록했다"며 "이래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고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섬 지역 어르신 백신 접종 불편 대책 마련해야'

오는 4월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섬 지역 주민은 육지로 나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하는 탓에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이자 접종 대상 전남지역 75세 이상 노인은 21만7096명이고, 이중 섬 지역 접종 대상 인원은 9091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관 부처별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섬지역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접종을 해야 하며, 만약의 상황을 고려해 접종센터 인근에서 하루 숙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백신 접종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

조오섭, 내일 '온택트 의정보고회' 유튜브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온택트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줌(ZOOM)과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 이번 보고회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회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고민정 우리아이국회의원도임 공동대표의 축사와 함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깜짝 출연도 있을 예정이다.



조 의원은 최근 LH사태와 관련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을 비롯해 37개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입법실적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등 4개 기관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조 의원은 "화상 고회를 준비한 만큼 많은 주민이 참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내일 신창동 일대서 '6차 동행공감 토요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광산구 신창동 일대에서 '6차 동행공감 토요일'을 연다.

'동행공감 토요일'은 민 국회의원이 매주 토요일 아침 시민과 함께 지역구 곳곳을 걸으며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시작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된 이후 중단한 상태였다.

이번 '동행공감 토요일'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 시·구의원을 중심으로 신창동 일대를 걸으며 주요 현안을 살피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아침 8시 30분 신창제를



출발해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파트 예정지 - 신창동 장애인회관복합시설 건립 예정지 - 선사유적지 및 체험학습관 부지 - 역사문화공원까지 약 4Km 구간을 걷는다.

한편, 광산구를 지역위원회는 현장에서 시민의 뜻을 찾고 해결방안도 찾는 '동행공감 토요일'을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오피스텔, 신축부지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구. 14평)
- ▶ PF 28억 확정, 지하 1층 공사 중
- ▶ 매매 - 21억원, 조정가
- ▶ 중개환영. 010-3605-5000